

고등학교 신입생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배 현 민¹⁾

배 천 응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고등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또래애착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또래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을 제외한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래애착이 높을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높은 학업성취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1)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52baechu@gmail.com)

I. 서 론

현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사교육에 지출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학업성취의 향상이다. 학업성취는 각 급 학교의 진급과 진학, 졸업 그리고 취업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각종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이후의 시간조차도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나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하여 가장 많이 고민하며(32.9%), 성적 및 진학문제(28%)로 인하여 가장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성취 문제로 인해 많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상담 영역에서 학습 상담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며 낮은 학업 성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학업 성취 향상 프로그램은 주로 학습전략훈련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Goleman(1995)은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의 힘인 정서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취에 있어 인지적인 능력보다 개인의 긍정적 정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개인의 정서상태

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개인의 정서상태 및 정서조절능력이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민혜경, 2005; 오숙영, 1996),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애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애착의 대상은 부모와 또래이지만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며 가족 외의 관계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감소하며(이시은, 이재창, 2005), 청소년기 시작과 함께 개인의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하므로 또래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는 시기이다(Steinberg & Silverberg, 1986). 또래관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밝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병삼(2012)은 한국청소년패널(K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중단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고, 최권, 전민재, 안효영, 진하늘과 도승이(2013)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우 관계는 학업성취에 대해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 모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최유선과 손은령(2015)은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과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관계, 또래관계,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가 서로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초기청소년, 중기청소년에서 동일하게 또래관계가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반면, 김경근, 연보라와 장희원(2014)은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체제에서 교우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비생산적 시간 운용 등을 초래하여 학업성취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청소년 시기의 주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최동렬(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친밀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았으나 또래관계의 친밀함은 학업성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관계 또는 또래애착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은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또래애착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의 관련성과 영향이 어떠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친밀한 유대관계인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지영, 이형실, 2010; 이시은, 2009; 이시은, 이재창, 2005). 박금주(2000)는 청소년들은 또래들로부터 거절당하면 낮은 자존감과 우울, 외로움,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보다 당면한 문제를 잘 처리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도 보다 잘 적응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하였으며, 장휘숙(1997)은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개념으로부터 발전하였다. Bandura

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학습행동이 학습자의 내적 사고과정에 의해 촉발된다는 내재적 동기이론으로 1980년대부터 급부상한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대표적인 동기이론이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 특정 행동의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기대 또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86)으로 기대 수준에서 제시된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각된 능력(Schunk, 1991)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며(Bandura, 1986), 학업상황에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요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특수적, 영역-특수적, 맥락-특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제-특수적 효능감은 특정 과제의 수행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업적 상황에서 덧셈, 뺄셈, 작문, 읽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특수적 효능감은 광범위한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언어 영역, 수리 영역처럼 특정 과제를 영역별로 묶어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맥락-특수적 효능감은 전반적인 학업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주요 역할로 매개효과를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보다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생이 처음 접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해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조화하며, 자신이 선택한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기술적인 사고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더욱 효율적인 인지전략을 사용하며, 시간과 학습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노력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Chemers, 200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이 밝혀졌고(Pajares, 1996;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Multon, Brown과 Lent(1991)의 메타 연구에서 학업수행의 약 14%를 설명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김아영, 조영미, 2001; 신종호, 신태섭, 2006;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애착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박연신, 2012; 정인향, 2005; 조은

주, 2007)과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문병상, 1998; 안주영, 1997; 정혜전, 1997)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부모 학력, 직업지위, 교육기대, 교우관계 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고1 시기에 가장 크고(장희원, 김경근, 2015), 고등학교는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 다양한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므로 기존의 또래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로 또래애착의 영향이 다른 변인들보다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또래관계와 학업자아개념 사이의 상관성이 여학생의 경우 보다 더 크며(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의 상관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이영민, 2006).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1학년의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1학년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사이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소재 M 남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42명으로 2015년 9월에 또래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총 229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또래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애착대상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또래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에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IPPA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의사소통은 또래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준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신뢰감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또래에게 나의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또래가 나의 판단을 믿어주는 가에 대한 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 화가 나면 알아차린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소외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또래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좌절

이나 침체 등을 묻는 문항으로 “내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로 이루어져있다.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8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이며 개인의 또래애착 점수는 의사소통과 신뢰감 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값으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전체 .76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28문항을 사용하였고, 이 검사지는 자신감을 묻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와 같은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을 묻는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와 같은 10문항과 과제수준 선호를 묻는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와 같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는 5단계 Likert식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 점수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이며 부정문항일 경우는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전체 .84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광의적 의미로는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및 가치관 등 정의적인 영역까지 포함(황정규, 1999)하기 때문에 완벽히 개인의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정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를 학생들의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로 정의(한국교육심리학회, 2000)함으로써 지적 영역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주관적 학업성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단위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2015년 9월 2일에 실시된 연합학력평가의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점수를 학업성취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또래애착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의 기초 통계 분석으로 또래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왜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22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또래애착	의사소통	3.31	0.90	1.75	4.88	-0.57	0.02
	신뢰감	3.50	0.90	1.40	4.70	-0.51	0.79
	소외감	2.10	0.93	1.00	4.43	0.69	0.81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3.20	1.01	1.88	4.50	0.15	-0.13
	자기조절 효능감	3.09	1.04	1.50	4.70	-0.08	0.17
	과제 난이도 선호	3.16	1.05	1.90	4.60	0.21	-0.01
학업성취		61.44	9.10	60	100	1.47	1.81

도와 침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애착에서 소외감의 경우 또래애착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소외감에 관한 문항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애착 척도의 소외감과 관련된 문항들은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측정의 타당도 문제로 문항이 삭제되거나 다른 하위 요인들에 포함되기도 하여 일관적이지 않았다.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 = .27, p < .01$) 간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 = .27, p < .01$) 간에는 약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r = .40, p < .01$) 간에는 중간 수준의 상관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래애착과 학업성취($r = .58, p < .01$) 간에는 높은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과 학업성취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 검증

또래애착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229$)

	1	2	3	4	5	6	7	8	9
1. 의사소통	1								
또래 애착									
2. 신뢰감	.79**	1							
3. 소외감	-.41**	-.51**	1						
4. 총점	.82**	.76**	.08	1					
학업적 자기 효능감									
5. 자신감	.28**	.34**	-.25**	.25**	1				
6. 자기조절효능감	.31**	.31**	-.20**	.28**	.78**	1			
7. 과제난이도선호	.30**	.33**	-.28**	.21**	.73**	.82**	1		
8. 총점	.32**	.36**	-.27**	.27**	.91**	.94**	.92**	1	
9. 학업성취	.47**	.49**	-.05	.58**	.37**	.30**	.35**	.40**	1

** $p < .01$.

표 3.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 = 229$)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SE)$	β	t	R^2	F
1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42 (.11)	.27	3.94***	.07	15.49***
2	학업성취	또래애착	18.90 (1.85)	.58	10.21***	.34	104.21***
3	학업성취	또래애착	16.59 (1.87)	.51	8.87***	.39	63.02***
		학업적 자기효능감	5.12 (1.21)	.24	4.22***		

*** $p < .001$.

표 2에서와 같이 또래애착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또래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 = .27, p < .001$)과 학업성취($\beta = .58, p < .0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단계와 2단계 모두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또래애착은 그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줄어들었고($\beta = .51, p < .001$)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beta = .2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AMOS 18.0의 Bootstrapping법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 간접 효과의 추정치는 .07이며, 95%의 신뢰구간은 [.028, .11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고등학생 시기는 여전히 부모와의 애착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애착은 중요성이 줄어드는 반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또래애착이 중요해진다. 특히 기존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또래들과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들에게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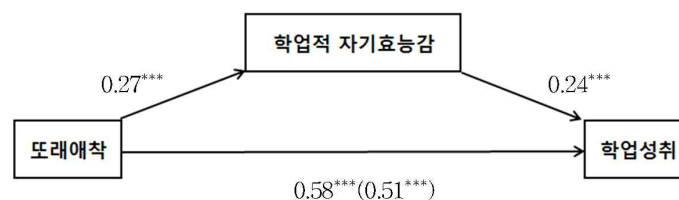
*** $p < .001$.

그림 1. 부분매개모형

어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학교적응은 물론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또래애착, 매개 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종속 변수인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각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매개분석을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전에 각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측정 변수들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요인 및 총점과 정적 상관을,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요인 및 총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또래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장휘숙, 1997; 이수연, 2012)과 일치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변수들 모두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아진다는 의미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미향, 2006; 나동진, 신미경, 조인근, 2008; 신용배, 1994; 정경아, 2003; Pajares, 1996)과 일치한다.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도 또래애착의 하위 측정 변수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중에서 소외감을 제외하고 모두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또래애착이 높은 학생이 학업성취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청소년 시기에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영숙, 2002; 최유선, 손은령, 2015; 심재인, 1999; 조은주, 2007; Cauce, Mason, Gonzales, Hiraga & Liu 1994; Fuligni & Eccles, 1993)와 부합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시기 연령 증가와 함께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또래애착의 정도가 커지며(장휘숙, 1997; 황창순, 2006), 이는 또래애착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래애착의 하위 측정 변수 중 소외감만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또래애착 척도의 문항에서 소외감에 관한 문항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의 매개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또래 애착이 학업성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될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제된 후에는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애착이 설명하는 학업성취의 변량은 원래 34%였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추가되면서 설명량이 39%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이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자신감,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쳐 이를 매개로 학업성취를 달성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에 또래애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애착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영숙, 2002; 최유선, 손은령, 2015; 심재인, 1999; 조은주, 2007; Cauce, Mason, Gonzales, Hiraga & Liu 1994; Fuligni & Eccles, 1993)와 일치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및 학업성취에 또래 관계의 친밀감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최동렬(2004)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 경로를 보면 또래애착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고등학생 시기의 중요한 과제인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 학업 기술 향상 등의 인지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서가 필요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Goleman, 1995), 학업성취에도 개인의 정의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민혜경, 2005; 오숙영, 1996; 이윤경, 2004; 이지운, 2000).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정서발달의 기본이 되며 개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인 학업적 자기효능감(Bandura, 1986)에 영향을 미치므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학업성취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학습량을 증가시키거나 학습 기술과 같은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학습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안정적인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학업성취관련 변인들 중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 중에서 인간의 정서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신입생의 정서적 안정에 토대가 되는

또래애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매개모델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관계를 구체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김영숙, 2002; 심재인, 1999; 조은주, 2007; 최동렬, 2004; Fuligni & Eccles, 1993) 의견이 엇갈리고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서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의 단선적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또래애착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학업성취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학습상담이나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애착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는 낮은 또래애착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애착에 비해 가변성이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상담을 위해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상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요 과업인 학업성취를 더 효

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필요한 구성요인들에 대한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습상담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유용한 이론적인 근거와 실천적인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하는 M 남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표집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상을 표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 측정을 위해 9월 모의학력평가의 국, 영, 수 세 과목의 원점수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구 일정상 학업성취를 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업성취 측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측정을 등급이나 백분위 점수와 같은 표준화된 학업성취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에 의한 설문지를 통해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방법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부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또래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매개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인 인과 관계에 불과하

다. 따라서 또래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학습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간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상담과 교육현장에서 이론을 적용하여 실제적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효과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0). 또래간 사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77-89.
-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서울시 중고등 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4(4), 1-29.
- 김미향 (2006).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조영미 (2001).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과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15(4), 121-138.
- 김영숙 (2002). 청소년의 애착 유형,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12~213.
- 나동진, 신미경, 조인근 (2008). 학업 성취의 사회적 목표와 학업 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업 불안의 매개 효과. 교육종합연구, 6(1), 131-152.
- 문병상 (1998).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42, 49-66.
- 민혜경 (2005).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이 사회성 발달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신 (2012). 청소년의 기질과 성격 및 부모와의 애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배 (1994).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습의욕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호, 신태섭 (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 5-23.
- 심재인 (1999). 청소년의 감성 지능과 초기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적응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초·중·고등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탐색. 교육심리연구, 19(4), 1199-1217.
- 안주영 (1997). 자기조절학습 전략,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오숙영 (1996). 인지 지능과 감성 지능의 교육적 효과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

- 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이수연 (2012). 성취동기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499.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영민 (2006). 아동의 성격과 교우관계 인기도 및 학업성취동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 (2004). 초등학생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운 (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또래관계와 자아개념 변화, 미래목표인식, 진로성숙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 성장. 교육심리연구, 27(1), 99-123.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희원, 김경근 (201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175-196.
- 정경아 (2003). 수학 성취 모형에서 수학 자기효능감의 예측적·매개적 역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병삼 (2012).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정인향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전 (1997). 자기조절학습에서 책략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년, 성별 및 성취수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 권, 전민재, 안효영, 진하늘, 도승이 (2013).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 관계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4), 281-306.
- 최동렬 (2004). 학생의 사회관계 친밀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성별, 학교급별 비교 -. 상담학연구, 16(2), 233~247.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황정규 (1999).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 17(1), 201-22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uce, A. M., Mason, C., Gonzales, N., Hiraga, Y., & Liu, G. (1994). *Social Support During Adolescenc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F. Nestmann & K. Hurrelmann (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t* (pp. 89-93), New York: deGruyter.
- Chemers, M. M. (2001). *Leadership effectiveness: An integrative review*. In M. A. Hogg & R. S. Tindale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Group processes* (pp. 376-399). Oxford, UK: Blackwell.
- Fuligni, A. J., & Eccles, J. 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22-63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Multon, K. D., Brown, S. D., & Lent, R. W. (1991).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0-38.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4), 543-578.
- Schunk, D. H. (1991). Goal setting and self-evalu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on self-regulation. In M. Maehr & P. R. Pintrich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7, 85-113. Greenwich, CT: JAI.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 1 차원고접수 : 2017. 10. 23.
수정원고접수 : 2018.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2.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Freshman: The Role of Academic Self Efficacy as a Mediator

Bae, Hyun-Min

Bae, Chun-Woong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2 high school freshmen students in the Daejeon area of South Korea. The three variables: peer attachment,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measu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18.0. In addition, this study adopted a Baron & Kenny (1986) three-stag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for peer attachment with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academic self-efficacy emerged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both educators and counselors in regards to what should be considered for helping low-achieving students to increase their academic achievements.

Keywords: peer attachment,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effect